

군산시, 연암대학교와 청년귀농인 안정 정착 업무협약

군산시가 연암대학교와 미래 청년 농 및 귀농인 유치를 위한 귀농정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 천안시에 자리한 연암대학교는 LG가 설립하고 지원하는 국내 최고의 차세대 농업기술 선도대학으로 스마트원예·축산 분야 특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연암대학교 귀농지원센터는 군산시 귀농 체험학교 프로그램 지원, 귀농귀촌 교육 견학시설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연암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귀촌 준비과정, 전직창업농 맞춤형 창업 준비 교육과정 실습의 하나로 군산 청년 귀농인 선도 농장을 체험하고, 군산



사진 제공=군산시

시 귀농·귀촌 및 청년농 육성 시책 발굴을 주제로 국내 최고의 차세대 농업 기술 선도대학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연암대 귀농정착 MOU 체결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는 7일 미래 청년농 및 귀농인 인구 유치를 위해 연암대학교와 귀농 정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암대는 LG가 설립하고 지원하는 국내 최고의 차세대 농업기술 선도대학으로 스마트원예 및 축산분야 특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이다.

특히 최근에는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종합평가 최우수 수준 선정, 영농창업특성화사업 교육 운영평가 최우수 S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연암대 귀농지원센터는 군산시 귀농 체험학교 프로그램과 귀농귀촌 교육 견학시설 지원을 약속했다.

채왕균 소장은 “선제적으로 농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우수 인재를 확보해 수도권 지역 농업 특성화고 및 대학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군산, 청년농·귀농 인구유치

연암대와 귀농정착 업무협약

군산시가 농업·농촌 활성화를 주도할 미래 청년농 및 귀농인 인구 유치를 위해 연암대학교와 귀농정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5일 농업기술센터 채왕균 소장, 연암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춘근 원장, 양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암대학교 실습농장을 견학하고 대학의 귀농인 교육 운영 과정에 대해 소개받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연암대학교는 LG가 설립하고 지원하는 국내 최고의 차세대 농업기술 선도대학으로 스마트원예·축산 분야 특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이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로 연암대학교 귀농지원센터의 군산시 귀농 체험학교 프로그램 지원, 귀농귀촌 교육 견학 시설 지원 등을 약속했다.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제는 기다리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농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우수 인재를 확보해 수도권 지역 농업 특성화고 및 대학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정일 기자

군산시-연암대, 귀농정착 업무협약

군산시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주도할 미래 청년농 및 귀농인 인구 유치를 위해 연암대학교와 지난 5일 귀농정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업무협약 체결로 연암대 귀농지원센터의 군산시 귀농 체험학교 프로그램 지원, 귀농귀촌 교육 견학 시설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연암대 평생교육원의 귀촌 준비과정, 전직창업농 맞춤형 창업 준비 교육과정 실습의 하나로 군산 청년 귀농인 선도농장을 체험하고 군산시 귀농·귀촌 및 청년농 육성 시책 발굴을 주제로 국내 최고의 차세대 농업기술 선도대학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농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우수 인재를 확보해 수도권 지역 농업 특성화고 및 대학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찬우 기자